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8월 11일(금)
---(음력 6월 25일)---
Пятница
11 августа 2023 г.
№ 31 (1204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7일(월)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신공항 터미널 복합체의 공식 개장식을 진행했다. (주정부 제공)

2023년 8월 13일은 러시아 건설분야 근로자 날

건설업 종사자 및 베테랑 여러분!

건설업계의 모든 근로자분들과 베테랑 여러분께 기념일을 맞이 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편안한 주택, 아늑한 마당, 매력적인 휴식공간과 모든 사회적 시설들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할린 건설업자들의 끈기와 목표 지향성은 우리 건설 산업에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노고로 인해 긴급 노후주택의 철거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해 안에는 수천 명에 해당하는 사할린 주민과 쿠릴 주민들이 새로 개설했던 아파트로 이사하여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산업과 농업 및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영역 또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해 안에 건설계획은 3개의 마을 문화회관 건립과 5개의 학교와 유치원, 4개의 체육시설 그리고 2개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건설업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사할린과 쿠릴지역은 더욱 번영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번영등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설 분야 근로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신공항 터미널 공식 개장

지난 8월 7일(월)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신 공항 터미널 복합체의 공식 개장식을 진행했다. 이 대규모 항공시설은 사할린 지역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프로젝트로, 주지사는 "나라의 동문"주식회사의 이사회 알렉세이 와실첸코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과 함께 빨간 리본을 자르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의 허브가 될 새로운 시설의 개장을 축하했다.

"오늘 우리는 거대 프로젝트 "신공항 터미널 단지"의 개장으로 인해 사할린주민과 쿠릴제도 주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고향으로의 귀길이 쉬워지고한, 관광객과 사업 출장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할린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 신공항은 앞으로 수십년간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할린 섬 내 발전을 위한 기회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항공 터미널 복합체는 연간 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이전까지의 승객 수용능력인 100만 명에서 150만 명보다 크

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이번 신공항 개장을 통해 사할린 주는 교통 허브 강화및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가 강조했다. 이번 신공항 개장식을 통해 주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사할린 주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할린 주지사는 또한 2024년에는 공항에 모든 유형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활주로가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활주로 건설은 작년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들은 현재 공항 주변에 '에어로 시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경축사를 마치며 대규모 공항 단지의 개장을 축하하고 건축업자, 당국및 신 공항 터미널 건설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구현에 감사를 표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테크 캠퍼스 착공식

지난 8월 9일(수) 사할린테크 캠퍼스 건설을 위한 기반 작업이 시작되었다. 착공식에는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 세르게이 키리엔코 제1 부실장, 러시아연방 고등교육 과학부 왈레리 팔코브 장관을 비롯 하여 러시아연방 및 주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사회 및 교육분야의 여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사할린테크 캠퍼스의 주요 연구분야는 세계 해양경제, 기후 및 환경, 수산생물 주요기술, 신재생 에너지, 석유 및 가스개발 기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 등이다.

이 세계 수준의 캠퍼스 조성 프로젝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과학과 대학교'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 MBC방송국 취재 팀, 사할린 방문

지난 10일(목), 제주 MBC방송국의 이혜원 피디와 김현명 카메라감독, 그리고 양성완 제주두루나눔 탈패 고문, 김영금 안무가등으로 구성된 팀이 3박4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취재팀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2-4세대 동포들을 만나 그동안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듣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가 고향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와 마카로브 시에서 만난다. 그리고 12일(토) 열리는 제2회 '라면'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취재팀이 사할린에 머무는동안 일정에 필요한 모든 도우메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임원들이 협조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 어민들, 18.5만톤 연송어 어획

러시아 수산업청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 수산 업체들은 8월 8일까지 18.5만 톤의 연송어를 어획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할린주 뿐만 아니라 마가단 주와 연해주에서도 지난 2년간의 어획량을 훨씬 웃도는 결과이다. 극동지역은 8월 8일 현재 산업 과학에서 권장하는 2023년 어획 목표량 51.2만톤 중 약 48만톤의 연송어를 이미 어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평양 연송어의 총 어획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많아지며, 2021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고려신문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8월15일 광복절 기념

친애하는 사할린 한인 여러분!

코리아의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할린 한인 여러분께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이 날은 우리 지역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알타 회담의 결의에 따라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물리치고 오랜 기간 일제 강점기 치하에 있었던 국가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당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소련 군인들의 용맹함 덕분에 섬 지역은 다시 러시아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3일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1945년)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로 선언하는 법률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역사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파시즘과 그 동맹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침략자들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수많은 한인들은 섬에 남겨 되었으나,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조국을 사랑했으며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과 끊임없이 연대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창조적인 동포들이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모든 것들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에 산 지 80년 넘어, 명료한 기억력과

얼마 전에 한 미술 전시회에서 이 블라디미르(이정목) 건축 전문가와 인사를 나누었다. 본인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이신 이순귀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어르신을 찾아 뵈러 갔다.

이순귀 할머니는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고곡리 출신이시고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생일은 전통에 따라 음력으로 9월 22일에 쇠고 계시다.

6년전에 마카로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해서 둘째 딸 이기자(러시아 이름 나탈리아, 1946년생)와 손녀 올가, 손주 사위 알베르트와 2층 단독집에서 살고 계시다.

금요일 오후 찾아가던 집에는 할머니와 따님, 그리고 아드님 블라디미르가 있었다. 반가이 인사를 나누는 후 필자는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삶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어보게 되었다.

이순귀 할머니의 가족은 박씨 가문으로 자녀가 8명(6남2녀)이었고, 그중 맏이로 태어나 본명은 박순귀다. '이씨' 성은 남편의 성인데 소련시대 때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갖게 되었다. 시집은 가장 훈인 적령기인 18살에 갔다. 한동안 시댁에 머물다가 친정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에 당시 사할린으로 돈벌이를 다니는 남편(본명 이보영)이 사할린에 가서 1년 후 돌아오자 함께 남편을 따라서 사할린으로 오게 되었다. 1942년에 사할린으로 남편과 함께 오고 나서는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식량이 많이 부



족했죠."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남편은 마카로브 탄광에서 일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에는 '나이부찌'탄광(돌린스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돈벌이하러 사할린에 왔지만 전쟁시기에는 강제동원이 집행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8월에 소련 군대가 사할린을 해방하고, 일본 사람들은 속히 본국 송환길에 나섰다. 남편(이보영 씨)은 마카로브에 있는 집으로 이동했다. 산길을 돌고 돌아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발병까지 났다. 발이 너무 아파서 일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 당시엔 탈론(배급표)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식량 받을 수 있었는데 탈론 배급은 일하는 사람만 주었지요. 나는 딸아이 (1943

년생 딸)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아파서 일을 못했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곰부(다시마)를 주워서 밥에 같이 넣어 밥을 짓고, 집에 있는 물건 하나씩 팔아서 먹을 것을 샀어요."라며 할머니는 살기 힘들고,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했다. 가족에게 환상 밥은 무엇보다 소중한 음식이었다.

할머니는 젊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남편과 함께 마카로브에서 손수 개인집 지을 때 삼질도 하고, 미장도 하고, 삐츨카(난로)를 키르피츠(벽돌)로 만들며 할머니는 "내 손이 못 해본 게 없어요."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텃밭도 일구고, 아이들에게 옷도 손수 재봉하고, 모든 사할린 동포 1세대들과 똑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오셨다. 아이들이 좀 컸을 때는 유치원에서 청소부, 마카로브 제지공장에서는 종이 포장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셨다.

할머니는 힘들게 사시는 이야기를 하시다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좋은 시절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여 우리는 이야기 주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할머니는 현재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시지 못한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세수하시고, 다음 바로 집 뒷마당에 나가 제일 먼저 아주 옛날 학교에서 배웠던 체조를 하신다. 할머니는 아직도 당신의 몸과 건강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다음에는 손녀와 함께 밭에 심은 여러 채소, 열매나무, 꽃들을 돌아보고, 필요한 작업을 직접 하신다.

이모저모

사할린의 낚시족, 연어기 시작 의식 가져

지난 8월 5일, 치르-운브드 마을에서 연어의 첫 걸음 행사인 '구의 그림자' 축제가 열렸다. 낚시족은 어획 시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땅과 물의 정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한다.

사할린에는 다양한 민족이 오랜기간 살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응원한다. 모든 낚시족은 조상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예술을 존중한다. 연어는 낚시족의 가장 중요한 어족이며, 이를 위해 기념일을 만들고 다양한 의식과 관습을 따른다. 이 행사에서 지역의 원로들은 존경과 경의의 상징이 되는 선물로 정령들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이 축제는 낚시민족무용단 '케흐(Kex)의 전통 춤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이어 씨족 장로가 약초를 피우 연기를 뽑아내며 의식을 거행했다. 이 연기는 신성한것으로 여겨져 어린 아이 할것 없이 모두 그 연기로 자기몸을 소독했다. 이들은 예로부터 신성한 연기를 피우면 질병과 불운을 이겨내고 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축제장에는 여러가지 장식 및 응용 예술 전시회도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전통 요리와 함께 가마솥에서 끓인 국물을 맛보며 축제를 즐김과 동시에 아이들은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니브히 나 Сахалине совершили обряд в честь начала путины горбуши

5 августа в селе Чир-Унвд прошел праздник первого хода горбуши — «Тени Гу». Чтобы сезон рыбалки прошел удачно, нивхи совершают обряд кормления духов земли и воды.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много лет жив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Все они стали одной семьей, научились дорожить дружбой и радоваться успехам друг друга. В каждом нивхе живет дух предков. Ежегодно они отдают дань уважения старым традициям. Так, для нивхов промысел рыбы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занятием, с которым связаны основные обряды и обычаи. Как

правил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вящают этот праздник первому ходу горбуши, где совершают ритуал кормления духов земли и воды, чтобы сезон рыбалки был удачным. На нем старейшины общин кормят духов дарами,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ми уважение и почтение.

Праздник начался с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анца нивхского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Кех», что в переводе на русский означает «чайка»

Следом старейшина рода провела обряд окуривания травой. Дым является священным, им окуривали как взрослых, так и детей.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куривание священным дымом предохранит человека от болезней, невзгод, злых духов и очистит душу.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ритуал изгнания злых духов проводят только самые уважаемые люди посел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на праздничной поляне в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ых жилищах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могли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 также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блюда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 на поляне в большом чане всех желающих ожидал наваристый суп.

"바다의 선물" 미식 마라톤, 8월 14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

"바다의 선물"이라는 미식 마라톤 '섬-물고기'축제가 8월 14일 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 공식 행사로 올해 다섯번째로 진행되며 8개의 공공 음식점들이 준비되어 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시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8월14일부터 9월 3일까지 3주에 걸친 미식 마라톤 기간 동안 준비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연송어, 가자미, 오징어와 같은 해산물을 활용한 독특한 요리를 방문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셰프들은 이러한 해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

시민들은 행사기간동안 '스바로그', '호무라', '카파니차 플레스카비차', '코바', '아사히카와', '훗카이도', '유주', '아로마 라운지'등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새로 개발된 특별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미식 마라톤 참가자의 정보 및 요리세트 메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Гастрон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начне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4 августа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в пя-

тый раз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Восемь заве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чнут удивлять гостей и жителей столиц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 14 август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недель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посетителям необычными блюдами из лосося, камбалы и кальмара. Шеф-повара разработали новые рецептуры из эт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Горожане могут насладиться этими кулинарными шедеврами до 3 сентября в ресторанах «Сварог», «Хомура», «Кафаница Плескавица», кафе «Коба», «Асахикава», суши-барах «Хоккайдо», «Юзу» и баре «Арома Лаундж». Адреса участников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и сет-меню с блюдами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사할린 낚시대회 우승자 9.5kg이상의 대구를 잡아

제6회 스포츠 낚시 대회가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열렸다. 이 대회 최고 우승자는 미하일 코르차긴으로 9.5kg이 넘는 대구를 잡았으며 우승 상품으로 냉동고를 수여했다고 텔레그램 채널 <우글레고르스크의 노보스티>에서 보도했다.

그리고 2위는 세르게이 일리아첸코가 차지했다. 그는 3인승 보트를 상품으로 수여받았다. 3위는 키릴 사렌코가 차지했다. 그에게는 캠핑 테이블과 텐트가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그는 8.6kg이 넘는 대구를 잡았다.

"가장 작은 물고기"를 잡은 부문에서는 알렉산드르 크레토르가 1등을 차지했다. 그는 943g의 물고기를 낚았다.

이 대회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참가자로 손남만씨가 뽑혔고, 최연소 참가자는 8세밖에 안된 미하일 두도치킨이 뽑혔다.

이 행사의 스포츠 낚시 대회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의 전통적인 행사이며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51명의 참가자가 이 대회에 참가했다.

Победитель первенства по ловле рыбы на Сахалине поймал треску весом более 9,5 кг

Шестое по счету Первенство по спортивной рыбной ловле прошло в Углегорске. Победитель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ймал треску весом более 9,5 кг.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Telegram-канал «Новости Углегорска».

(8면에 계속)

판단력으로 백세를 바라보는 이손귀 할머니

할머니는 "호박이 자라는 게 기쁨을 줍니다."라며 필자에게 마당에 있는 모든 식물을 자랑했다. 심심하게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신다. 심심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꽃과 나무들이 주는 선물이다.

따님(이기자)은 "채소와 화초밭은 어머니와 제 딸 담당입니다. 저는 삽질하고 집안일을 하죠."라고 한다. 그녀는 여름에 날씨가 좋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집마당에서 하루종일을 보낸다. 이를 위해 사위는 밖에 여름 주방도 만들어 놓았다.

할머니는 손주 사위와 친근하게 지내신다. 손주 사위는 항상 할머니 편을 들고, 배려해주며 가끔 와인이나 맥주도 함께 한다. 할머니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드시는 편이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지만 나름 거동이 자유로우시다.

아들 블라디미르는 "제가 오호츠크에 가는 길에 다차가 있는데 거의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조카들도 같이 다차로 갑니다. 거기 있는 밭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1등 일꾼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밭에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감자, 채소, 딸기 등을 심는다. 물론 그곳 경치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운데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큰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다고 하신다.

할머니의 슬하의 자녀는 맏이가 1943년생, 막내는 1960년생이다. 이손귀 어르신은 자녀와 손주들로 자손부자다. 자녀는 8명(2남6녀), 손자·손녀는 16명, 증손주는 23명, 고손주는 3명이다. 이중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한

다. 할머니는 자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배려하며, 염려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타냈다. 남편(이보영)은 1980년 60세 되는 해에 돌아가셨다. 그 이후 이손귀 할머니는 많은 자녀를 키우시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셨다.

할머니는 가족이 다같이 모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신다.

손주, 증손주, 고손주들에게 이손귀 어르신은 '할머니'로 불린다. 러시아 식으로 '바부슈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집안에서 호칭은 무조건 '할머니'다.

가족은 할머니 생신 때는 물론이고 여러 명절에도 잘 모인다.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시니 자주 전화연락을 해주기도 한다.

2006년에는 사할린주로부터 '어머니의 영광'이라는 메달을 받았다.

할머니는 티비를 보시면서 특히 일기예보를 전할 때 사할린의 모든 도시를 읽으며, 가족들에게 다음날의 일기예보를 전해주시기도 하신다.

할머니는 러시아 알파벳을 따로 배우지 않았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스스로 알파벳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하신다.

"나는 읽을 수 있는데 쓸 줄은 몰라요."라고 하신다.

어린시절 학교에서는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 4학년까지 마쳤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다고 한다. 한글은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셨다고 했다. 할머니의 외조모(오할머니)는 선비의 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녀도 한글과 한문을 잘 아셨다. 교육과 어문에 대한 관심은 선비의 가문에

서 내려온 전통 같다. 이손귀 할머니는 책읽기를 좋아하시고, 알고 보니 우리 한민족지 애독자이다.

"우리 조선신문 첫호부터 읽고 있어요. 그동안 빠짐없이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지금도 금요일마다 신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밖의 주방에는 해마다 새고려신문 연초호에 실렸던 음력 달력이 발견되었고, 할머니의 방 문에도 신문에 실렸던 음력 달력이 붙어있었다.

할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무엇보다 10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명료한 판단력과 기억력이 필자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에 아직도 다니고 계시다. 최근에는 다차가 느라고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노인정에서 초대한다는 연락을 잘 받고 있다. 노인정 담당자의 러시아 이름을 말씀하시다가 부칭을 바로 말하지 못했는데 딸이 도와주다며 부칭을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 부칭이 옳지 않다고 하시며 잠시 3초간 생각하시더니 바른 부칭을 말씀하셨다.

내년 2024년에는 이손귀 할머니께서 100세를 맞이하신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좋은 전통과 예를 전하시길 바라며, 다가올 할머니의 100년의 역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한인, 8월의 주요 행사

사할린 지역 한인들에게는 8월의 가장 뜻 깊은 행사로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사할린 주내 여러 지역에서 기념한다. 올해 첫 광복절 행사는 오는 12일(토), 12시 코르사코프 시 '오케안' 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행사프로그램에는 각종공연과 민속 공예 활동교실, 씨름대회, 박람회, 디스코테크 등이 준비되어 있다고 행사 주최자인 코르사코프 구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에서 전했다.

지금까지의 전통에 따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광복절 행사가 8월의 셋째 토요일, 올해는 19일 진행된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2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할린주한인협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시공원의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12시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준비하는 기념행사는 에코농장(사슴농장)에서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두 행사 역시 공연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 스포츠대회 등으로 이어진다고 전해졌다.

또한 12일(토) 오후 12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레야'쇼핑센터 앞마당에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주최하에 제2회 <라면>축제가 열린다. 이 행사프로그램에는 라면시식, 다양한 콩쿠르 및 공연, 무술 시범대회 등이 포함된다.

8월 10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대중교통 요금 인상

8월 10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대중교통(버스 및 철도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멀티요금제가 도입되었다. 1회용 티켓 가격으로 카드결제 시 30루블리, 현금결제 시 32루블리이다. 그리고 1일 이용권은 104루블리, 7일 이용권은 620루블리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한달 이용권은 1,800루블리이다. 이번 대중교통의 새로운 요금 체계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인에게 유용한 이용권을 구매하면 탑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요금 체계와 더불어 무료 환승 시스템도 계속 유지된다. 1회용 이용권을 구매한 승객은 45분, 1일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24시간, 7일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168시간, 한달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720시간 이내에 철도 또는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교통 이용권은 유효한 교통카드, 사할린 통합카드,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충남대-사할린한국교육원 ·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교육 협력 강화

충남대학교가 사할린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과 유학생 유치, 언어 교육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충남대 국제교류본부(본부장 조혁수)는 충남대 국제교류본부에서 지난 3일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정승훈), 4일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원장 이재현)과 잇따라 유학생 유치 교류 추진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러 두 국가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 부문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충남대와 사할린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은 △충남대학교-러시아 대학 간 교류 협정과 공동연구 대학 연계 △두 기관 국제교류 프로그램 홍보와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사업과 추진 협력 △교육정보와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상호 보조를 맞춘다.

[충청일보]



▲ 충남대-사할린한국교육원 업무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정승훈 원장, 조혁수 본부장)

재외동포청장, 원폭피해동포의 아픔을 함께 하다

재외동포청장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 위령제 참석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8.5.(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열린 한국인원폭피해자 위령제에 참석하였다.

54회를 맞은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제'는 1970년 재일민단 히로시마 본부 주도로 건립된 한국인원폭 피해자 위령비에서 매년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여 원폭 피해 동포들과 함께 원폭 피해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을 추모하였다. 동 위령제에는 주일대사관 및 히로시마 총영사관, 원폭피해동포 관련 단체, 중앙 및 히로시마만민단 관계자, 일본 정치계 인사 등 한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일본측에서는 사이토 데츠오 국토교통대신 등이 참석하고 기시다 총리도 조전을 보내왔다.

이기철 청장은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로 이역만리 타향에서 스러져버린 한국인원폭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고통과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낸 원폭 피해 동포들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난 6월 5일 출범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원폭피해동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 동포 및 다문화 동포, 해외 입양인 동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히로시마 위령제 참석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강조하였다. 동 위령제 참석은 동포보듬기 정책의 대표적 사업인 원폭피해자 초청 사업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동포보듬기 사업 수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기철 청장은 위령제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계기에 도쿄, 히로시마에서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동포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 방향인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정책 추진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된다.

(재외동포청 제공)

사할린주, 신공항 터미널 공식 개장

(1면의 계속)

그리고 이 선도적인 공항 단지는 지역 예산과 개인 투자자의 자금으로 건설되었다. "크라스노인웨스트"회사는 2021년 3월에 터미널 건설을 완료하기 위한 입찰에 선정되어 10월에 작업을 시작했으며 코로나 19 제한과 반러시아 제재가 심화된 시기였지만 투자자는 가능한 빨리 프로젝트를 구현해야 했으므로 신공항 터미널 현대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투자한 총금액은 약 125억 루블리에 달했다.

새로운 공항 단지의 면적은 47,000평방미터를 초과하며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터미널이 탄생했다. 그리고 이번 신공항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항공탑승용 신축 사다리 6개, 체크인 카운터 26개, 에스컬레이터 5개, 엘리베이터 23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전자동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5단계의 보안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당 1,200개 이상의 가방과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다. 터미널의 시각적 디자인은 섬의 자연적, 문화적 특징을 기반으로 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Несколько яр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ознаменовали собой начало нового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иници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ила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ФГБОУ ВО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де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 мае 2023г.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семинар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ого стали уч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уководители спортивных федераций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тхэквондо и ссиры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ый проект приурочен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30-летию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редполагает обмен опытом, определение новых задач, наце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рмирование кросс-культур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в регионе, развитие гармоничных межличностных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основы формирования гармонично развитой личности.

Первое совмес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директор Лим Э.Х.) с ГБУК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научно-экспози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Хай Ок Дя) прошло 20 мая 2023 г. На семинаре «Постижение традиций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Ночь в музе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езультаты многолет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в исследован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представили интересные доклады,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



подавателей вуза и сотруд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Тематика выступлений поразила слушателей многогранной палитрой тем: «Значение и особенности цветка мугунхва ка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имвола Коре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й керамики периода Корё и Чосон в изделиях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теров»,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игр», «Особенности мужских головных уборов в средневековой Кореи», «Значение 5-цветной палитры в России, Кореи и Узбекистане», «Искус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вышивки в Кореи».

Не заставили себя долго ждать и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27 мая 2023 г. прошл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ЮСМСОО «Клуб

Торнадо» (руководитель Ри Павел Гирсонович) на площадке детского сада №9 «Чебурашка» (руководитель Янушковская 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РОО «Федерация рукопашного бо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едующим шагом в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 с 1 сентября 2023 г. на базе детского сада «Чебурашка» отделения СК Торнадо, где у ребят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ять все тонкости олимпийского тхэквондо.

Обращаясь к названию проекта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легк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основная цель – откры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а пути к новым знаниям.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Экс-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Пак Хе Рёну исполнилось 85 лет

8 августа Пак Хе Рёну, быв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известному животнов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85 лет. Он родился в 1938 году в Поронайске.

Многи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ют Николая Ивановича Пак Хе Рёна, так как он внес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Пак Хе Рён считается отцом-основателем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й отрасли на островах. Благодаря его усилиям на острове было создано стад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и увеличено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овы даже летали в Москву на ВДНХ и получил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от росси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В 1999 году Пак Хе Рён стал президентом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пробыл на этом посту 13 лет. При его участии был открыт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 такж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 в ре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опроса», связанного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японцы насильственно переселили на Сахалин.

В 1971 году Пак Хе Рён был удостоен ордена «Знак Почета», в 1986 году —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а в 1998 году он получил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2008 году он стал почет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к Хе Рён свободно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понским и корейским языками.

Клип на песню «Сахалинская зазывальная» появился в сети

8 августа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клипа на песню «Сахалинская зазыв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активно набирает просмотры и собирает лайки на YouTube. Видео снял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ы вместе». Островные артисты исполнили песню в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ах региона.

Автором слов является Чан Тэ Хо, музыкой сочинил Сергей Вербицкий. Спели песню студенты музык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Ларисы Долиной: Виктория Малютенко, Дмитрий Абясов, Дарья Смирнова, Поли-

на Пивоварова, Максим Ким, Полина Малышева, Кристина Шенеман, Евгения Жижкина, Александра Конищева, Святослав и Кристина Булатовы, Кристина Воловик, Георгий Зобов, Алексей Солдатов, Никита Клеваний, Александр Лопатин, Сергей Антонов и Этно-группа «Нивхун».

В клипе показали такие места, как ворота Торие,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ыс Птичий, сквер Авиаторов,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маяк Анива и другие.

Инопланетянин с корейской душо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30)
Почему ты работаешь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Соджи Араи» в США?

Примерно в 2015 году они внезапно изменили правила или политику. Типа: Сохи, ваша фамилия Пак корейская? Вы не можете прослушиваться на японские роли. Объяснял им, что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в Японии, мой родной язык японский, даже мои родители родились в Японии, но бесполезно. А потом не мог пройти прослушивание на корейские роли, потому что не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говорил на корейском. В итоге решил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воего гордого имени, данного моему дедушке в первом поколении, и начать использовать имя Соджи Араи. Американское имя в японском стиле. Араи — это японская фамилия, которую использовали мои дед и отец. Соджи: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я иду в Starbucks и говорю кассиру свое имя «Сохи», они перезванивают мне, чтобы уточнить имя: «Соджи?» «Соки?» Взял Соджи. Затем родился Соджи Араи.

М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в Кореи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ущих лидеров 2022 года. Почему тебя интересует эта тема?

Для меня знакомство со всеми корейцам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и выросли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 это большой опыт. Будучи зайнички-корейцем всю свою жизнь, я думал о свое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стречая этих глобальных корейцев и зная, что у них тоже был такой же кризис идентичности или поиск идентичности,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н в этом, и они меня очень воодушевляли. Потому что чувствую, что у нас есть что-то общее. Надеюсь, что они продолжат это делать, всегда готов быть приглашенным в качестве приглашенного

докладчика,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 уникальным опытом корейца-зайнички, а также как актера!

В июне ты посетил Казахстан. Есть л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боты с казахстанским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ами?

Мне очень повезло, что меня познакомили со многим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ами Казахстана! На самом деле, да. Компания «Эпицентр» Игоря Цая собирается снять фильм о «Депортации». Они планируют включить меня в свой проект!

Также, в Казахстане в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г. Алматы мы посетили премьеру спектакля о корейцах «40 дней чудес» в постановке Кан Тхэ Сика. Твое мнение о спектакле.

У Корё-сарам богатая история. Меня впечатлили актеры, театр. Как здорово иметь собственный театр!

Хотел бы побывать в России?

Когда был моложе планировал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Но пришлось отменить поездку, потому что нужно было дождаться одного кинопроекта. Фильма режиссера Сергея Бодрова «Монгол». Сергей приехал ко мне в Токио, я тогда играл в картине «Три сестры».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тел, чтобы я сыграл Чингисхана. В конце концов много чего случилось. Поездка в Россию, увы, не состоялась, так же, как и возможность сыграть в фильме Сергея. В любом случае надеюсь однажды приехать в Россию!

Мои любимые писатели — Пушкин, Чехов, Достоевский, Толстой и другие. Мой любимый поэт — Лермонтов. Мне нравится русская история, особенно революционная.

Лана Тян, спецк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ведомляет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к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кандидатам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осьмого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 5, назначенных на 10 сентября 2023 г.

Наименование СМИ: «Сэ коре синмун(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Общий объ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бесплатной печатной площади в агитационный период составит 1198,5 кв. с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идёт подготовка к специальной амнистии

8 августа Корейская комиссия по амнистиям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ровела заседан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специальной амнистии по случаю 78-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В состав комиссии входят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Хан Дон Хун, тр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сотрудника министерства и пять независимых экспертов, в том числе, учёные-юристы и адвокаты. Они составляют список амнистируемых,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утверждён президенто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 этот раз под амнистию попадё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Предстоящая амнистия станет треть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Юн Сок Ёль вступил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КНДР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ЧМ-2026 по футбол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Азиатском отборочном турнире на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2026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Все команды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группа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йтингом FIFA.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йдёт в группу В вместе с Японией, Сирией и победителем матча первого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между Мьянмой и Макао. Первый матч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футболисты сыграют 16 ноября в Пхеньяне со сборной Сирии. У них есть все шансы занять второе место в группе и выйти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В 2026 году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пройдёт в изменённом формате.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45 команд, прошедших квалификацию, и три принимающие страны - США, Канада и Мексика. Ранее в чемпионатах мира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32 страны.

У 99,2% южнокорейцев антитела к COVID-19

99,2% южнокорейцев имеют антитела к COVID-19, причём 78,6% из них приобрели антитела путём естественного заражения.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9 августа Корей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которое вместе с профиль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провело исследование среди 9.798 граждан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пяти лет в период с 27 марта по 15 апреля. Выяснилось, что 80%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хотя бы один раз были заражены коронавирусом.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антител во многом обуславливает низкое число тяжёлых и смертельных случаев.

Дирижёр Юн Хан Гёль – лауреат Конкурса имени Герберта фон Караяна

29-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ирижёр Юн Хан Гёль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имени Герберта фон Караяна в австрийском Зальцбурге.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ы лауреатам самого престижного конкурса молодых дирижёров состоялась 6 августа. В финальном туре Юн Хан Гёль дирижировал часовой программой, в которую вошли «Увертюра к опере «Севильский цирюльник» Джоакино Россини; Ария Моцарта «Ah se in ciel, beigne stelle» для сопрано с оркестром, К. 538; «О крысах и людях» Син Дон Хуна, а также «Симфония № 3 ля минор соч. 56» Мендельсона. Премии Герберта фон Караяна присуждаются дирижёрам в возрасте до 35 лет, конкурсы проводятся каждые два года. Герберт фон Караян – известный австрийский дирижёр, который руководил Берлинским филарм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с 1956 по 1989 год. Лауреат получит денежную премию в размере 15 тысяч евро и возможность выступить с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Radio Vienna в рамках Зальцбург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2024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жары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В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ти количество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жары.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за один день 7 августа 106 жителей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обратились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с жалобами на недомогание, вызванное сильной жарой. Всего с начала лета за помощью обратились 1.984 человека, что в 1,5 раза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лет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ежду тем, число умерших вследствие жары составило 27 человек. Среди пострадавших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в 31,1% пришлась на людей старше 65 лет.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ярмарка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ы ханбок

С 10 по 13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COEX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единственная в стране ярмарка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ы ханбок. Её проводит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совместно с 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ремёсел и дизайна. Гости ярмарк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издел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108 профильны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ляют традиционные наряды, ханбок для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даже для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риобрести их можно будет со скидкой до 80%. В программе демонстрац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танцев, обучающие программы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дизайнеров, конкурс песен и розыгрыши призов.

(RKI)

Нападения на прохожих вызвали серьёзн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Чем это грозит имиджу страны?

Серия резонансных и ничем внешне не спровоцированных нападений на прохожих с применением холодного оружия,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в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рьёзно перепугала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оставив под сомнение имидж страны с "почти нулевым уровнем уголовной преступности".

Паниче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подогреваются тем, что в интернете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анонимных постов, обещающих продолжение подобных атак. Чтобы хоть как-то успокоить людей,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ошли на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патрулирование улиц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роневых машин полиции и стражей порядка, вооружённых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оружием. Эксперты называют эти шаги "эффективным, но неэффективным шоу", но признают, что быстро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ет, а общество, возможно, столкнулось с волной новых массов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о которых корейцы ранее слышали только из зарубежных новостей.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есть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мутчи-ма помчжве", которое можно перевести как "преступление, при котором не задают вопросов и не предъявляют претензий". В практическом плане это преступление весьма агрессивного,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 нанесение тяжких телесных повреждений, покушения на убийства и убийства, – при которых жертвами становятся случайные люди, которым просто не повезло "попасть под руку" преступнику, и когда сами пострадавшие абсолютно никак не связаны с нападавшим. Вот серия именно такого рода преступлений сейчас захлестнула страну, заставив волноваться корейцев.

Первым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резонансным случаем такого рода стало происшествие 29 июля, когда в районе станции Силлим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 33-летний мужчина, выйдя из такси, начал большим кухонным ножом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абсолютно незнаком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просто находились рядом. Один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в итоге скончался от полученных ранений, вообще стоял спиной и разговаривал по мобильному телефону, когда получил несколько ударов. Еще трое пострадали, когда преступник пошел дальше по улице, нападая на всех прохожих. Агрессора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задержали, а по поводу причин своих действий он сообщил лишь, что "он никчемный человек" и "ему уже все равно".

3 августа в чем-то схожее по сути преступление произошло в городе-спутнике Сеула Пундан. 22-летни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управляя легковым автомобилем, сначала намеренно направил его в группу стоявших на тротуаре людей, а когда машина не смогла двигаться дальше, то вышел из нее, зашел в крупный универмаг и ножом стал также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рохожим. Возникла паника, многие побежали, прибывшая на вызов полиции смогла скрутить преступника, н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острадали 14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одна пожилая женщина скончалась, а состояние еще двоих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очень тяжелое.

Задержанный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е мог внятно пояснить, что заставило его пойти на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но затем выдал из себя, что, мол, в этом районе живет девушка, с которой он расстался, он сильно страдал и решил напасть на прохожих, надеясь, что пострадает кто-то из знакомых бывшей возлюбленной. Правда, эксперты ставят под сомнение достоверность показаний, не исключая, что история о несчастной любви была придумана на ходу.

Дан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луч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и местных СМИ широчайший резонанс, спровоцировав настроения, близкие к паническим. Ситуацию усугубило то, что в интернете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анонимных заявлений, где некоторые пообещали продолжить серию подоб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граждан возросла еще больше, повышенным спросом ста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всевозможные средства самозащиты, а от властей стали требовать "принять меры" и "обеспечить мир и порядок на улицах".

В итоге власти РК пошли на весьма необычный для страны шаг, выведя на улицы крупных городов страны бронированные полицейские машины, а также введя режим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стражами порядка, которые облачены в подчеркнутую боевую экипировку, а некоторым выдали автоматическое оружие. Эксперты, правда, тут же назвали все это "эффективным, но неэффективным шоу", отметив,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лну неспровоцированных нападений не остановить, так как преступники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их быстро поймают.

Сами же полицейские в частном порядке указывают, что многим не выдают боевые патроны, а в случае реаль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оружия стражей порядка

со стороны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нутре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иции ждет такой интенсивност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что проще кидаться с голыми руками на ножи, чем пытаться доставать табельное оружие. Впрочем, политики решили – и не без оснований – что подобные "меры устрашения" не будут совсем уж бесполезным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стали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увереннее, видя демонстратив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полиции в людных местах. В целом же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такие сцены – с вооруженной полицией – были обычно "экзотическими". Такие патрули можно было изредка видеть в аэропортах и иногда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некоторых посольств – опять же в качестве мер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возможных возмутителей спокойствия, а не как реальную готовность применять оружие на поражение.

Параллельно в СМИ страны получили широкое освещение и другие нападения, где мотив более понятен. Так, один мужчина зашел в школу, где некогда учился, нашел своего бывшего преподавателя и нанес ему несколько ударов ножом, после чего был задержан.

Стоит признать, что для страны с населением более 51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три преступления такого рода – это все же очень немного,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они приобрели непропорциональный резонанс. Пожалуй, большей проблемой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широкой невольной "рекламы" может появиться эффект копирования, когда другие нестабильные личности, которые при друг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сидели бы тихо, решат повторить дан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од д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в связи с ростом в интернете "анонсов" новых атак полиция стала действовать активне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уже выявлены и задержаны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тех, кто обещал "повторить трагедии Силлима и Пундана". Правда,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в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одобные "заявители" пытались, если верить им, "просто пошутить" и немедленно теряли бравадный тон, когда понимали, что за посты в Сети могут заставить ответить по всей строгости закон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корейцы в целом стали с ким-то повышенным подозрением относиться к прохожим и особенно к тем, у кого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причинам видят ножи. Уже известно о нескольких случаях задержаний по ошибке, когда "кто-то что-то увидел", сообщил об этом в полицию, а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накачанные" указаниями "действовать решительно", проявили чрезмерное усердие. Определенный резонанс получил и инцидент, когда занимавшегося спортом 14-летнего школьника два полицейских "уложили лицом в асфальт", посчитав, что тот убегает от них. Оказалось, что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был вечером на пробежке, а оклики с призывами остановиться не слышал из-за наушников. В итоге большим полицейским начальникам пришлось извиняться перед парнем, у которого на лице и теле остались синяки и ссадины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патрульными.

Учитывая реакцию общества на преступления и то давление, которому подверглась полиция,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неизбежно, что "перекося" в сторону чрезмерного усердия по борьбе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будут иметь место. В целом же социологи отмечают, что не менее серьезной проблемой, чем сами преступления, являются те полупаниче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которые начинаю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Люди невольно начинают подозревать, бояться друг друга, обычных прохожих. Хватает и тех, кто говорит, что сейчас "после работы просто поскорее пытаются попасть домой", не думая о встречах с друзьями или иной активности из-за опасений за соб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Южная Корея же,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и общепризнанных достоинств которой был крайне низкий уровень преступности, начинает терять этот имидж,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глазах самих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Другая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непонятно, как бороться и как определять, кто реально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причинам решит купить в универсаме нож побольше и пойдет выплескивать агрессию на невинных людей. Продажу ножей в стране не запретишь, проверять каждого не получится, а жить все равно приходится вместе – в этом и смысл любого челове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чевидно, что есл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продолж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мутчи-ма помчжве" не последует, то постепенно ситуация нормализуется, но о том, что было в районе станции метро Силлим и в универмаге города Пундан, не забудут, и любое иное схожее случайное преступление куда быстрее спровоцирует новую волну озабоченности и недоверия к посторонни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ложили фундамент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ладки капсулы в фундамент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ахГ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ервые лица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кампусов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реализу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который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тарт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ал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министр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числе почетных гостей – заместитель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ригорий Куранов,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Ксения Разувае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Григорий Гуров.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я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этим долгожданным событием!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удивительно богатая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земля. Однако наше главное богатство – это люди. Поэтому нет ничего важнее инвестиций в образование, воспитание и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И именно для этого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нужен кампус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Это часть реализации большой программы, запущ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Владимировичем Путиным, по созданию в стране кампусов 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высочайшего уровня.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и получали образование, первый опыт в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ахалинТех з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 центр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не только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но и с самыми крупными росси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 начинает работу со школьниками.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ребят буд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йти себе дело по душе,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ю мечту, –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станут экономика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климат и экология, аквабиотехнологии, новая энергетика, нефтегаз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направл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изучением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 Наш регион успешно живет и развивается, завершены и начавшиеся крупные стройки – главно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этого. Мы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шли к созданию кампуса. Буквально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разработали проект и вышли с ним на федеральный уровень, заручившись поддержкой 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тому ч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луч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у себя дома. Найти работу по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и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ой профессии. Реализовать вес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алерия Николаевича Фалькова,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то, что поддержали наши планы по созданию соврем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кампусе СахалинТе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учебные аудитори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R&D центры, технопарк, библиотеку, спортивные зал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музей.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мпуса появятся помещения для пуб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ыставочные площадки, кафе и оранжерея, которая одновременно будет и открытым обществен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Общая площадь объекта – более 8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Хочу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слова не расходятся с делом. Вы подавали заявку и победили. Вы оказались в числе 9 регионов, которые отобраны во второй волне. И вы – первый регион, который так быстро стартовал.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мы реализуем две большие программы. Одна из них – э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ампусов. Этот проект до 2026 год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н. Он значимый, конечно. Но это все-таки физическая оболоч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 стены,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а, без

этого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возможно. Но первичным являются люд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людей о современ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правильно выстроенные процессы, поним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практик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этому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ы запустили отдельный трек программы «Приоритет 2030.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во второй отбор СахГУ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этой программы.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и два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 стороны одной медали,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Валерий Фальков.

По словам и.о.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а Самардака, кампус должен развивать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лучшими мировыми трендами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студентов.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цифровизации процессов и внедрению систем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реждения. Для этого совместно со Сбером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создаются молодеж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технологиям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в инженери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олучит развитие Фиджитал-спорт – функционально-цифровое двоеборь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будет запущен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который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точек притяжения молодежи из России и близлежащих стран АТР.

– Фиджитал-спорт обладает большим потенциалом. Сегодня он развивается быстрее, чем большинство друг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ривлекает множество зрителей со всего мира, помогает студентам социализироваться,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и знаниями, поддерживать себя в отличной физической форме. Фиджитал объединяет в себе сразу два компонента – классический спорт и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Мы за гармоничное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и, поэтому будем помогать нашим студентам в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чает и.о. ректор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Также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будет возведен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Он расположится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нем смогут разместиться 1500 человек. Городок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трех девятиэтажных зданий, объединенных стилобатом. В стандартной секции будет 2 комнаты, санузел и места для учёбы.

Для досуга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удгородка появят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Так, будет оборудована спортивная зона, включающая в себя фитнес-центр с раздевалками и душевыми, комплекс тренажерных залов. Также в студгородке обустроят столовую, кафе, медицинский пункт.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будут открыты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ста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в 2025 году, 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в 2026 году.

В СахГУ запустили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бакалавриата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театральных и медиастудий в школах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Школа – театр – вуз»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еатра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медиакommunikация».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ГУ, а также Союзом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и Театральным институтом имени Б. Щукин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театре имени Е. Вахтангова (Москва).

– К 2024 году в каждой школе нашей страны буду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школьные теат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сейчас создано 97 театральных студий, в которых занимаются свыше 2 тысяч ребят. У нас очень талантливые педагоги, которым нужно помочь развивать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ыезжать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 подчеркну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стреча первого набора абитуриентов по нов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остоялась в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е «РОС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реди будущих студентов – педагоги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районов, которые ведут теа-

тральные занятия в школах. Исключением стала выпускница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ласс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школы №13 имени П.А. Леонова Ксения Каргина. Девушка будет обучаться по целевому договору на нов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К 11 классу я была уверена, что буду поступать на педагог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не очень повезло,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м году в СахГУ открыли набор на эту специальность. Спасибо моим наставникам в школе – директору Елене Николаевне Мишенковой и хореографу Вячеславу Сергеевичу Окладникову – за то, что привили мне любовь к допобразованию в целом. Этот интерес я буду дальше передавать своим ученикам, – поделилась Ксения.

Для обоих направлений определены наставники – эксперты в сфере театр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медиакommunikаций.

–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и руководство главного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давнюю боль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У нас начали системн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дефицита в нашей отрасли. Уверена, что выпускники нового курса станут настоящи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в медиасфере и пополнят ряды сотруд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СМИ, – сказала наставник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медиакommunikаций, директор «ГТРК Сахалин» Валерия Помыткина. Кроме того, в СахГУ запустили новые программ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Театр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и «Медиакommunikация» для педагогов, имеющих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курсе по медиакommunikациям будет сделан акцент на современные онлайн-медиа и каналы пере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А в рамках театрального курса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бучение с московски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выезд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 участием артистов артистами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ладила тесно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работе по поддержке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ции мед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бойцам стали одной из центральных тем в ходе расширенн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ллегии проку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РФ Дмитрий Демешин. С докладом о поддержке бойцов выступ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С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с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ась в работу по поддержке участвующих в СВО бойцов и их семей. Единным фронтом 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органы в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работает филиал госфонда поддержки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По заявкам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отправляем нашим ребятам разл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хнику 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м семьям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 поддерживаем материально, помогаем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получением образования и услуг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Это большая персональная работ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в областн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более 600 военных получили медико-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На Сахалине налажена всесторонняя помощь мобилизованным гражданам и членам их семей. В этом вопросе налажено тесное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Оплачивается обучен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на автобусе по регулярным рейса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родительской платы за присмотр детей, посещающих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Дет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аквапарка,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Демешин.

В ходе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годня на нашу страну оказывается сильнейшее внешнее давление.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Россия в целом,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частности, продолжают развиваться. Та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начатых программ и проектов – улучшается видны практические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и газификации, строятся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модернизируется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казывается поддержка бизнес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Именно эта идея легла в основу творческой встречи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едагог Сон Чен Сог) с учащимися МБОУ ДО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уч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ак Ген Чун),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начале ав-

густа. В рамках тематической смены «Корея –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летнего школьного лагеря ребята посетили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репетиции барабанщиков и смогли по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игре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и узнать от руководителя ансамбл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звучания каждого из них.

«Перед встречей мы очень волновались и не знали, как все это организовать».

Решили для начала сделать небольшую экскурсию по корейскому центру.

Пригласили детей и преподавателя в малый зал,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посмотрели вводный материал по истории самуры и популярности этого вида музык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России. Я рас-

сказал о нашем ансамбле, чем мы занимаемся и далее прошли в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где показали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й номер в этом жанре и провели мастер класс.

Судя по отзывам родителей и восторженным глазам детей, все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Расширение кругозор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Ханьль» Сон Чен Сог.

«Эмоции, интерес, удивление, радость – все это испытали наши ребята, играя на корей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ах. Каждый попробовал играть на нескольких из них. Участники ансамбля «Ханьль» с вниманием и терпением подошли к каждому из детей. Наши ребята соприкосну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и музыко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Это обязательно останется в памяти, и став

взрослыми, они будут теплее друг к другу, уважая людей друг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учитель Пак Ген Чун.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Открывая безгран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знаний» только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йдут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и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Лим Э.Х., Корнеева И.В.

재외동포협력센터, '2023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한글 교육환경이 취약한 일본지역 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9박 10일간 '2023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를 진행한다.



일본 전역에서 재일동포 초등학교 4~6학년 약 70명이 만나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한국어 집중캠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 관동·관서 지역 한글학교협의회가 현지 사전 연수(동경 7월 21일~22일, 오사카 7월 16일, 23일)를 개최하였다. 사전 연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국어 집중캠프 참가 학생들의 연수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설명 및 학부모 대상 간담회도 진행하였다.

8월 6일부터 한국의국어대학교 주관(재외동포협력센터 주최)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집중캠프에서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전통악기와 화폐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한국어 배우기, 초등학교 방문과 K-급식 체험, 서울 시티 투어와 잠실 롯데월드 탐방, 그룹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한국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8월 7일 진행된 입소식에서 김영근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재일동포 참가자들이 한국을 친근하게 느끼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내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협력기관인 재일민단과 재일동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집중캠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월드옥타 유럽·CIS·중동·아프리카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8월 4~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열려 한인 차세대 118명 참가

월드옥타 유럽·CIS·중동·아프리카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이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퀼룸호텔에서 열렸다.

월드옥타 부다페스트지회(회장 이영인)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유럽·CIS·중동·아프리카 지역 월드옥타 차세대 회원 118명이 참가했으며, 홍규덕 주헝가리대사, 월드옥타 박종범 상임이사, 최귀선 동유럽부회장, 손병권 서유럽부회장, 오상택 CIS부회장, 이영인 부다페스트지회장이 참석해 차세대들을 격려했다.

3일간 진행된 무역스쿨에서는 현재 폴란드에서 법인을 두고 안경테 사업을 하고 있는 김동진 대표가 삼성 주재원을 거쳐 사업을 하게 된 경험을 공유했고, 강병일 노르웨이지회장이 무역에 관한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강의했다.

또한 신가영 코트라 과장이 유럽 시장 동향 및 실무사례에 대해 강의했고, 권익환 사프고트 대표가 젊은 사업가로서 사업 경험을 나눴으며, 월드옥타 상임이사인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오스트리아에서 기아차 주재원으로 일하다 연 매출 1조원, 직원 4,5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조립 공장을 설립하며 겪은 성공담을 강연했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 동안 유럽·CIS 지회장들은 월드옥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및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재외동포신문)

논현2동,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에 마음돌봄키트 전달

인천시 남동구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사할린 동포 2·3세대 27가구의 영주귀국을 환영하는 마음돌봄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센터 임원진 대표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27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논현2동장의 환영 인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마음돌봄키트 전달, 사할린 동포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남동구 논현2동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는 250세대 367명으로 인천에서는 가장 많으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다.

문정현 사할린센터 회장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려 입국한 영주귀국자를 이렇게 환대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사할린 2·3세대 입국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숙 동장은 "영주 귀국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신문]

별세소식에 "마음 아파요"라는 아이,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고 김재림 할머니를 추모하며 <일제 강제동원, 이름을 기억하라!>를 읽고

아이들이 방학을 해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 가운데,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딸이 기사를 보고 "엄마,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말한다. 관련한 책을 함께 읽으며 할머니의 생애를 검색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능주공립초등학교(현 능주초등학교) 졸업 후, 같은 해인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 됐다. 2년 정도 제작소에서 생활하다 1945년 귀향했다.

2014년 2월,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마지막 대법원판결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별세하셔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책, 피해자들은 어찌 이 세월 견뎠을까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은 쉬웠지만 아픔까지 함께 느끼기는 어려웠다. 밖은 한여름이다. 아이와 함께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찾은 책, <일제 강제동원 이름을 기억하라!>를 넘길 때마다 피해자들은 어찌 이 모진 세월을 견뎌내었을까 하며 마음이 저렸다.

지은이 정혜경은 정부 기관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11년간 조사과장으로 일했다. 이 경력 때문인지 여는 글인 글쓴이의 말과 '기록이 말하는 일제 강제동원', '이름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해'. 모두 세 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 이인 최혜인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지금은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칫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책을 넘기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2013년 11월 17일. 한 기자의 특종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마을 이장들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에 끌려간 사람의 이름을 전국에서 모은 자료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명부의 이름은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였다 (관련 기사: 3·1운동 당시 희생된 630명 명부 최초 공개 <https://omn.kr/4zeb>)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사갈 때까지 서고 상자 안에 있는 서류의 가치를 60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다. 어려운 한자로만 되어 있었기에. 장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자료 확인차 저자인 정혜경 박사에게 의뢰가 왔다. 거기에는 22만 8274개의 사연 많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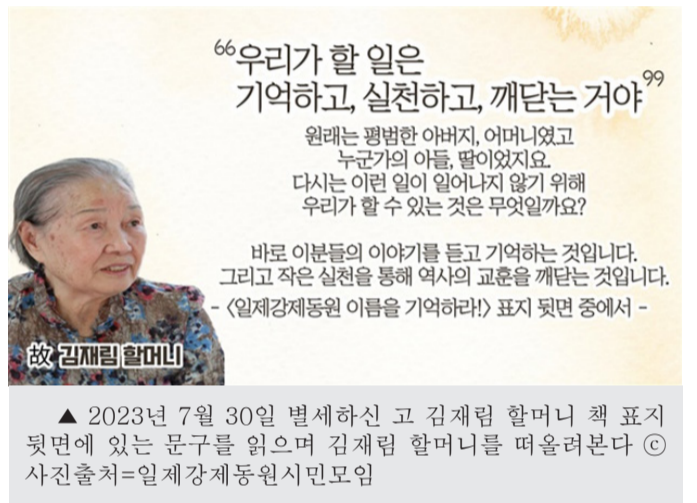
일본의 탄광에서 탄을 캐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던 소년. 태평양에서 비행장 뒤편 청년 이야기. 경북 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감독에게 얻어맞아 울던 소녀. 함경북도에서 철도를 놓던 할아버지까지.

강제동원 피해는 동원된 뒤 남은 그 가족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었다. 일례로, 책에 나오는 신윤순 할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이 본 적이 없고, 어릴 적 친구들과 놀림에 속상할 때도 많았다. 신 할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는 사할린(화태)으로 징용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추후 그는 사할린 탄광에서 보내진 편지를 들고 기나긴 여정 동안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사할린에



▲ <일제 강제동원 이름을 기억하라!>(글 정혜경, 그림 최혜인, 사계절, 2018), 가격 12,000원



▲ 2023년 7월 30일 별세하신 고 김재림 할머니 책 표지 뒷면에 있는 문구를 읽으며 김재림 할머니를 떠올려본다 © 사진출처=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도착하자 개인이 와서 안 된다며 거부당했던 신 할머니는, "나라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아들이었고 딸이었을 그분들

일본 정부는 당시 일할 사람을 찾다가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월급도 많이 받게 해 준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본문 115쪽 중)"라면서 13세 이상 여학생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조선에서 데려오기로 했다. 공장에 비행기 부품을 만들던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가, 부품을 만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던 조선 소녀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거짓말에 속고 말았다. 시간은 흘러 나고 야에 갔던 소녀들은 할머니가 되었다.

한편, 책에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일본의 선생님도 소개되었다. 세계사 선생님 다카하시 마코토 선생님은 살고 지역 공장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조선인 소녀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1999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법정에서 세웠다.

미쓰비시 측의 사과와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다가 건강 약화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김재림 할머니 또한 그중 한 분이다.

책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김 할머니가 어릴 적 나고 자란 곳인 화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어쩌면 할머니의 강제동원되었던 시기가 딱 지금 아이들 나이였으니 말이다.

할머니가 졸업한 학교를 사진으로 보면서, 다음엔 아이들과 함께 가보기로 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아들이었고 딸이었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이다.

김재림 할머니를 포함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를 잊어서 안 될 것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처럼 할머니의 마지막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픈 역사를 기억했으면 한다.

(김민지, bookminji) (출처: <오마이뉴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Абсолютным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Михаил Корчагин. Треска весом в 9 кг 524 г — самая крупная на Первенстве. Мужчину наградили морозильной камерой», — указано в сообщении.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Сергей Ильященко. Ему вручили трехместную лодку.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замкнул Кирилл Саенко. Парень получил в подарок туристический стол и шатер-палатку. Он поймал треску весом более 8,6 кг.

В номинации «Самая маленькая рыба» лучшим стал Александр Кретор. Он добыл рыбу весом 943 г.

Самым опытным рыбаком стал Нам Ман Сон, самым молодым — Михаил Дудочкин, которому всего восемь лет.

Первенство по спортивной рыбной ловле я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й стал 51 человек.

사할린 Pride Race 장애물 경주 접수 시작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장애물 경주인 Pride Race의 참가자 접수가 시작되었다. 이 대회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동안 트라이엄프 스키 및 바이애슬론 단지에서 개최된다고 사할린 주 체육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이 경기의 첫날에는 5km의 성인참가자의 레이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장애물로 이루어진 모든 코스를 최대한 빠르고 지구력있게 그리고 민첩성과 속도 조절력을 가지고 전력을 발휘하여 극복해야 한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챔피언십" 형식은 체력적으로 훈련된 전문 스포츠맨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 형식에서는 주어진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되며, 경기도중 어떠한 도움도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어진 제한 시간내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 이 경기 방식은 5명이 참가하는 개인 및 팀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오픈" 형식은 초보자나 단순히 이 대회를 즐기고 싶어서 경주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기이다. 이 형식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허용되며, 장애물을 전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참가자는 시간

제한 없이 코스를 계속 달릴 수 있다.

그리고 경기 둘째날, 10월 1일에는 아이들을 위한 레이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참가자는 부모와 함께 500미터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

6세부터 14세까지의 참가자는 1,000m와 1,500m의 거리로 "오픈" 및 "챔피언십"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이경기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완주자 메달이 특별히 주어진다.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гонку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Pride Race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традиционные гонки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Pride Race.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но-биатло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иумф» 30 сентября и 1 ок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вый день состоится взрослая гонка на 5 км.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ит преодолеть трассу, включающую естественные и искусственные препятствия, на скорость, выносливость, ловкость, координацию и силу.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разных форматах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участников.

Формат «Чемпионат»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физ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а дисквалификация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препятствий, запрещена любая помощь на трассе, а также есть ограничение времени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трассы. Гонка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как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так и в командном формате для пяти человек.

Формат «Оупен»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новичков или для тех, кто просто хочет пройти гонку для удовольствия. Здесь разрешена помощь со стороны, и в случае несоблюдения препятствия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продолжить движение по дистанции без ограничения времени.

1 ок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гонка для детей. Участни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трех до пяти лет должны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еодолеть дистанцию длиной 500 метров.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6 до 14 лет будут предложены дистанции от 1000 до 1500 метров в форматах «Оупен» и «Чемпионат».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т особую медаль финишер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김포에 거주하시는 신속자 선생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팔순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기간 역사 교사로써, 학교 교장으로써, 그리고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국 검사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수고로운 노력 덕분에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선생님과 가족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전문학교 동창생 일동 드림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